

분단 46년 남북한과학기술용어 이렇게 달라졌다



李 仁 圭

〈서울대 자연대교수/생물학〉

남북한이 분단된지 반세기가 다 되었으므로 여러 영역에서 남북한간에 이질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화가 영역에 따라서는 차후 한민족의 동질성회복이라는 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산 식물에 대한 국명의 이질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주목되어 마땅하다. 그 까닭은 이름의 혼란이란 그 분야의 교육과 학문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 한국산 식물에 대한 국명의 통일작업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정도여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1970~80년대에 국가적인 주요과업의 하나로 북한산 동식

물에 대한 국명 통일작업이 완료되어 북한산 식물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들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1992년 과학재단의 방문연구를 통하여 헝가리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고, 그곳에 소장된 북한산 식물명집을 입수한 바 있어서, 현재 남한에서 그 명명작업이 완료된 분류군을 대상으로 남북한에 함께 출현하는 식물에 국한시켜 식물명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는 그중 하등식물의 조류(藻類)에 속하는 분류군인 녹조식물과 갈조식물에 대하여 남북한의 국명을 학명과 대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명의 비교 검토는 차후 남북한의 식물명 통일작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녹조식물(綠藻植物)과 갈조식물(褐藻植物)

학 명	북한용어	남한용어	학 명	북한용어	남한용어
DIVISION CHLOROPHYTA	록조식물문	녹조식물문	Enteromorpha clathrata	갈래실푸른지	격자파래
Order Ulotrichales	푸른실말목	초록실목	E. compressa	참실푸른지	납작파래
Family Ulotrichaceae	푸른실말과	초록실과	E. crinita	강실푸른지	실파래
Ulothrix flacca	참푸른실말	초록실	E. intestinalis	잘룩실푸른지	창자파래
Order Ulvales	푸른지목	갈파래목	E. linza	청태	잎파래
Family Monostromataceae	단층푸른지과	홀파래과	E. prolifera	긴실푸른지	가시파래
Monostroma angicava	판대기단층푸른지	삿갓홀파래	Ulva conglobata	에기푸른지	모란갈파래
M. grevillei	얇은단층푸른지	그레빌레홀파래	U. japonica	갈래푸른지	초록갈파래
M. latissimum	주름단층푸른지	넓은홀파래	U. lactuca	참머살이푸른지	참갈파래
M. nitidum	참단층푸른지	참홀파래	U. pertusa	구멍푸른지	구멍갈파래
Family Ulvaceae	푸른지과	갈파래과	U. reticulata	그물푸른지	그물갈파래

학 명	북한용어	남한용어	학 명	북한용어	남한용어
Order Cladophorales	넙주말목	대마디말목	Ishige okamurae	줄짜지발송치	패
Family Cladophoraceae	넙주말과	대마디말과	I. sinicola	잎짜지발송치	넓패
Chaetomorpha aerea	통사슬말	에기염주말	Family Leathesiaceae	끈끈이과	바위두둑과
C. brachyгона	털실사슬말	덩이염주말	Leathesia difformis	끈끈이	바위두둑
C. crassa	실사슬말	굵은염주말	Petrospongium rugosum	해면끈끈이	바위주름
C. linum	줄사슬말	실염주말	Family Scytosiphonaceae	줄뽕이과	고리매과
C. macrotona	참사슬말	큰염주말	Colpomenia bullosa	주름물주머니	긴불레기말
C. moniligera	구슬사슬말	염주말	C. sinuosa	물주머니	불레기말
C. spiralis	굵은사슬말	나선염주말	Endarachne binghamiae	나도참다시마	미역쇠
Cladophora albida	숨털넙주말	숨대마디말	Hydroclathrus clathratus	구멍물주머니	그물바구니
C. japonica	큰넙주말	큰대마디말	Petalonia fascia	나도미역	개미역쇠
C. rudolphiana	노란넙주말	덤불대마디말	Scytosiphon lomentaria	줄뽕이	고리매
2C. sakaii	긴줄기넙주말	사카이대마디말	S. lomentaria f. lomentaria	참줄뽕이	잘록이고리매
C. stimpsonii	명주넙주말	명주대마디말	S. lomentaria f. tortilis	틀개줄뽕이	꼬인고리매
C. utriculosa	부채넙주말	주머니대마디말	Order Dictyosiphonales	실짜지발목	바위수염목
C. wrightiana	참넙주말	갈색대마디말	Family Asperococaceae	등근물주머니과	바위수염과
Order Codiiales	청각목(Siphonales)	청각목	Myelophycus simplex	바위수염	바위수염
Family Bryopsidaceae	새깃청각과	깃털말과	Family Punctariaceae	점다시마과	넓미역과
Bryopsis corymbosa	새깃청각	술깃털말	Punctaria latifolia	넓은점다시마	넓미역쇠
B. plumosa	참새깃청각	참깃털말	P. plantaginea	긴점다시마	질경이넓미역쇠
Family 2. Caulerpaceae	덩굴청각과	옥덩굴과	Order Cutleriales	말총말목	채찍말목
Caulerpa okamurae	포도덩굴청각	옥덩굴	Family Cutleriaceae	말총말과	채찍말과
Family 3. Codiaceae	청각과	청각과	Cutleria cylindrica	참말총말	채찍말
Codium adhaerens	일청각	떡청각	Order Sphacelariales	검정말목	갯쇠털목
3C. coactum	기느청각	누운청각	Family Sphacelariaceae	검정말과	갯쇠털과
C. contractum	몽퉁청각	몽우리청각	Sphacelaria furcigera	듬북검정말	가위갯쇠털
C. cylindricum	긴청각	기동청각	S. tribuloides	부채검정말	삼각갯쇠털
C. divaricatum	검정청각	말청각	Order Desmarestiales	췌기말목	산말목
C. fragile	참청각	청각	Family Desmarestiaceae	췌기말과	산말과
4C. minus	구슬청각	구슬청각	Desmarestia ligulata	큰췌기말	참산말
C. tenue	실청각	에기청각	D. viridis	털췌기말	쇠꼬리산말
DIVISION PHAEOPHYTA	갈조식물문	갈조식물문	Order Sporocnales	제기말목	털비말목
Order Ectocarpaceae	소털말목	숨털말목	Family Sporocnaceae	제기말과	털비말과
Family Ectocarpaceae	소털말과	숨털말과	Carpomitra cabreriae	털가지말	얼매외관말
Ectocarpus siliculosus	참소털말	참숨털말	S. scoparius	제기말	참털비말
Order Chordariales	송치목	민가지말목	Order Laminariales	다시마목	다시마목
Family Acrotichaceae	긴털말과	끈말더부살이과	Family Alariaceae	다시마과(Laminariaceae)	미역과
Acrothrix pacifica	긴털말	끈말더부살이	Undaria peterseniana	가는미역	넓미역
Family Chordariaceae	긴송치과	민가지말과	U. pinnatifida	참미역	미역
Chordaria flagelliformis	긴송치	민가지말	Family Chordaceae	고루메과	끈말과
Papenfussiella kurono	새깃송치	연두털말	Chorda filum	루메	끈말
Sphaerotrachia divaricata	돌송치	잔가지말	Family Laminariaceae	다시마과	다시마과
Tinocladia crassa	굵은송치	부편말	Agarum cribrosum	시루말	구멍쇠미역
Family Elachistaceae	숨털송치과	모자반털과	Costaria costata	소미역	쇠미역
Elachista globosa	숨털송치	등근모자반털	Ecklonia cava	참도포	감태
Family Ishigeaceae	짜지발송치과	패과	E. kurone	검은도포	검둥감태

학 명	북한용어	남한용어
<i>E. stolonifera</i>	홀잎도포	곰피
<i>Eisenia bicyclis</i>	깃대망	대황
<i>Laminaria japonica</i>	참다시마	다시마
<i>L. religiosa</i>	가는다시마	에기다시마
Order Dictyotales	짜지말목	그물바탕말목
Family Dictyotaceae	짜지말과	그물바탕말과
<i>Dictyopteris divaricata</i>	줄짜지말	미끈뽀대그물말
<i>D. latiuscula</i>	넓은줄짜지말	넓은뽀대그물말
<i>D. prolifera</i>	좁은줄짜지말	가시뽀대그물말
<i>D. undulata</i>	주름짜지말	주름뽀대그물말
<i>Dictyota dichotoma</i>	참짜지말	참그물바탕말
<i>Dilophus okamuræ</i>	뱃짜지말	개그물바탕말
<i>Pachydictyon coriaceum</i>	긴짜지말	참가죽그물바탕말
<i>Padina arborescens</i>	참바다부채	부챗말
<i>P. australis</i>	얇은바다부채	호주부챗말
<i>P. crassa</i>	주걱바다부채	분부챗말
<i>P. minor</i>	꽃바다부채	에기부챗말
<i>Spatoglossum pacificum</i>	칼짜지말	참가시그물바탕말
Order Fucales	듬복목	모자반목
Family Cystoseiraceae	듬복과(Sargassaceae)	개모자반과
<i>Coccolophora langsdorffii</i>	나도가는잎듬복	삼나무말
Family Fucaeeae	나도듬복과	뜸부기와
<i>Pelvetia siliquosa</i>	나도갈래참듬복	뜸부기
Family Sargassaceae	듬복과	모자반과
<i>Hizikia fusiformis</i>	간들개	툏

학 명	북한용어	남한용어
<i>Sargassum confusum</i>	긴톱잎듬복	알잎이모자반
<i>S. filicinum</i>	고비듬복	고사리모자반
<i>S. fulvellum</i>	참듬복	모자반
<i>S. giganteifolium</i>	큰톱잎듬복	큰톱니모자반
<i>S. hemiphylum</i>	칼잎듬복	썩잎모자반
<i>S. homeri</i>	깃듬복	팽생이모자반
<i>S. macrocarpum</i>	큰꼬잎듬복	큰열매모자반
<i>S. micracanthum</i>	가시듬복	잔가시모자반
<i>S. miyabei</i>	잔잎듬복	미야베모자반
<i>Sargassum nigrifolium</i>	주걱잎듬복	검둥모자반
<i>S. nipponicum</i>	솔잎듬복	꼬마모자반
<i>S. patens</i>	외수염듬복	쌍발이모자반
<i>S. piluliferum</i>	잔콩듬복	구슬모자반
<i>S. pinnatifidum</i>	나도깃듬복	갈래잎모자반
<i>S. ringgoldianum</i>	큰잎듬복	큰잎모자반
<i>S. sagamianum</i>	틀개듬복	비틀대모자반
<i>S. serratifolium</i>	가는톱잎듬복	툏니모자반
<i>S. siliquastrum</i>	구직듬복	파깨기모자반
<i>S. thunbergii</i>	가는잎듬복	지층이

* 북한 통용 학명으로서 현재 바뀐 것들임.

주 1: *Letterstedtia japonica* Holmes

2: *Cladophora sakaii* Abbott

3: *Codium coactatum* Okamura

4: *Codium mammosum* Harvey var. minus Schmidt

공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공기층을 대기라고 한다. 대기는 지면으로부터 수백km에 이르는 높이까지 넓게 퍼져 있는 큰 바다와 같다. 우리의 머리위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은 공기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인간을 비롯한 땅위에 사는 짐승들은 이 공기의 바다 밑에서 살고 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질소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해 약 78%이고 산소가 3분의 1인 21%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정도가 여러가지 가스들로 되어 있다. 이중에서 질소와 산소를 제외하고 양이 많은 순으로 다섯가지를 꼽아보면 알곤, 네온, 헬륨, 크립톤, 키세논 등이다. 이밖에 공기 가운데는 상당한 양의 수증기도 포함하고 있다.

과학정보

공기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약 11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한다. 대류권은 높이 오를수록 공기의 밀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평균 1백m 오를 때마다 기온이 섭씨로 약 0.6도씩 내려간다. 해발 2천m 높이의 산이라면 지상보다 12도정도가 낮다는 계산이 된다.

대류권에서는 공기의 운동이 활발해서 구름과 안개가 생기고 비와 눈이 오기도하며 번개와 천둥현상이 일어난다. 대류권의 위 즉 지상 11km에서 80km까지의 공기층

은 성층권이라고 한다. 지상 11km에서 33km까지 온도가 대략 일정해서 영하 섭씨 55도에서 65도정도를 유지한다.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섭씨 영하 40도정도가 된다.

공기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지면에서 받는 공기의 무게는 1평방 cm당 약 1kg에 이른다. 어른의 경우 손바닥 면적은 대략 50평방cm 쯤 된다. 손바닥에 50kg에 달하는 물건을 매달고 다니는 셈이다. 이렇게 따지면 대략 머리에 3백kg에 해당하는 짐을 이고 다닌다는 계산이 된다.

이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도 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과 함께 아래서도 같은 힘이 받쳐준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않고 생활해 갈 수 있다.